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신 탁월한 령도자

김 경 철

인류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것으로 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긴 명장, 정치가들이 수많은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처럼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쓰러졌을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탁월한 선군령장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았습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21권 4페이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 사회주의수호전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앞에서 한결음의 양보와 후퇴는 열결음, 백결음의 양보와 후퇴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은 먹히우게 된다는것이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의 최고체현자, 최고강자이시며 제일배짱가이시다.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는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총포소리없는 사회주의수호전이 치렬하게 벌어진 나날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에는 무자비한 군사적타격으로, 정치외교적압력에는 초강경대응으로, 반동적사상문화적침투에는 혁명적사상공세로 맞서나가기면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2(1993)년 2월 적들이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과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해나섰을 때 선군령장의 담력과 배짱, 명철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압살책동을 단매에 쳐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책동에 대처하여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고 그에 이어 우리 혁명무력이 강경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으며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3월 12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준전시상태의 선포와 그에 뒤이은 핵무기전과방직조약에서의 탈퇴성명은 적들에게 련속 가해진 심대한 타격으로서 미행정부를 《완전히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3월 24일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도록 하심으로써 적들에게 또다시 타격을 안기시였다.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아직 기본단계, 실동훈련단계에 있고 적들이 동원시킨 병력을 4월말까지 그대로 두기로 한 조건에서 준전시상태를 주동적으로 해제하는것은 실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준전시상태의 조기해제로 적들은 다시한번 패배자의 물결을 세상에 드러내보였다.

미제는 1998년에 《북조선으로 쳐들어갈것을 예견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완성하고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제3국의 출판물을 통해 빼것이 공개하면서 우리를 위협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작전계획》의 공개는 우리를 위협공갈하며 우리에게 저들과의 대결과 협력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이였다.

전쟁이냐 평화와 안전이냐, 과연 누가 굽어들것인가, 세계의 이목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 이른 조선으로 쏠리였다.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있던 주체87(1998)년 11월 2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기를 꺾어보려고 전쟁계획을 만들어 사방에 공개하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적들의 《작전계획 5027》의 침략성을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드디어 주체87(1998)년 12월 2일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던 조선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에 추호의 용서없이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다》가 발표되였다.

성명이 나가자 우리의 기를 꺾어보려고 침략전쟁계획을 내돌리던 미제는 《작전계획 5027》의 가동을 정지시켰으며 《작전계획 5027》을 통한 미제의 《심리작전》은 도리어 저들을 정치군사적근경으로 몰아넣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핵문제》를 가지고 덤벼든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된대를 안기고 철추를 내리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나게 고수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다음으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혁명만 단결이며 단결은 혁명이다. 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공고발전시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민일치문제를 단순히 군대와 인민의 호상관계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뿌리, 선군혁명단결을 가장 공고하게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군민일치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시였다.

혁명적동지애를 일심단결의 기초로, 우리 혁명의 추진력으로 규정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과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난한 곳이라고 해도 기어이 찾아가시여 믿음을 주고 정을 주시며 사랑의 한뫼에 안아 선군혁명동지로 내세워주시었다.

인민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사회주의정치의 기본원리로 간주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합심하여 일하도록 이끌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는 신념의 동지, 열혈의 동지들이 사상과 뜻과 정으로 뭉친 혼연일체로 승화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불패의 위력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거창한 투쟁속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돌이켜보면 령전종식후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 군사, 경제적고립압살책동은 그 규모와 강도, 수법의 악랄성에 있어서 실로 전례가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강도높은 고립압살책동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로 여기고 여기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고 당과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혁명적의리로,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여기면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전기가 없으면 손으로 기계를 돌리고 원료, 자재가 부족하면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생산을 보장하였으며 식량이 모자라면 풀뿌리를 캐먹으며 과감히 시련을 뚫고나간것도, 새 세기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라남의 봉화, 강선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일심단결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내돌리면서 꿈꾸던 그 무슨 《체제붕괴설》의 망상은 산산이 깨여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다음으로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를 이룩하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군력이 강해야 당과 정권도 지켜낼수 있으며 사회주의도 수호할수 있다.

군사를 최대의 국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군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것을 인민군대사상사업의 기본방향, 기본목표로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군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하시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이 항일의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몸소 군인들의 소박한 예술공연도 보아주시였을뿐아니라 병사들과 담화도 하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군대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보장해주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위력한 강군으로 만드는것을 군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전의 특성과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가 우리 식의 독특한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격소멸할수 있는 위력한 공격수단과 민음직한 방어수단들을 갖추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력한 타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이 불패의 군력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군사적침략책동을 견제하고 제압하는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를 위한 위력한 군사적담보로 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적들이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할 때마다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상과 막강한 군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제국주의강적인 미제와 직접 맞선 상태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없이 총대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인민군대를 불패의 군력을 가진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탁월한 선군령장이시였으며 불패의 일심단결과 군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신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호자이시였다.